



2020-21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Vol.22)

e-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ffections and supports you have shown and contributed in the year of 2020.
I do wish we all the very best for 2021.

CONTENTS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_ 겨울이 만든 그림(김택수)



WEATHER

- 04 / 기상청장 기고문1- 고슴도치 딜레마와 겨울나기
- 06 / 기상청장 기고문2- 코로나19 시대와 기후변화 시대
- 08 / 기상청장 기고문3- 기상관측차량, 기상관측의 사각지대를 지운다



REPORT

- 10 / 2020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9 / 2021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0 / 2021년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2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SERVICE

- 24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 25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1년 2월 26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훈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준휘(기획운영과), 백은희(예보과), 이영미(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나윤(기후서비스과), 김예슬(기획운영과), 김경수(관측과), 김호(예보과), 박민규(관측과), 박창용(예보과), 옥순기(관측과), 이상걸(예보과), 이진화(예보과), 조현겸(관측과), 최유미(기후서비스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저각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고슴도치 딜레마...
모순된 인간의 심리상태
쇼펜하우어 저서에 언급
그 후, 심리학 용어로...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몸을 밀착하여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디려고 한다. 하지만 고슴도치 몸에 난 가시 때문에 몸을 밀착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결국, 둘은 다시 떨어지게 되지만, 견딜 수 없는 추위에 다시 또 몸을 밀착하기를 수차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체온도 유지하는 이상적인 거리를 알게 된다.

찬바람이 불고,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는 계절이 오면, 생각나는 우화, ‘고슴도치 딜레마’이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이후, 심리학 용어로 자리 잡았다. 모순된 인간의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타인과 친밀해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모순된 마음을 지칭한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날, 서로의 머리만을 맞대고 체온을 유지한다고 한다. 우리도 고슴도치와 마찬가지로, 올겨울을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며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추위는 온도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기온은 단순히 공기의 온도지만, 사람은 열, 바람, 습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더 춥게 느끼게 된다. 겨울의 경우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할수록 피부의 열 손실률이 높아져 내부체온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면, 영하 10°C에서 풍속이 1.4m/s일 때 체감온도는 영하 13°C이지만, 풍속이 8m/s가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19°C까지 떨어져 강한 추위를 느끼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움츠러든다. 이는 추울 때 몸의 표면적을 최소화하여 몸에서 열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추울수록 몸을 움츠리는 것보다는 활발히 움직여서 열을 방출시키는 것이 신체 열 생산을 위해 더욱 좋다.

겨울철 따뜻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추위를 가장 잘 타는 곳은 목 부분이고, 추위를 가장 덜 느끼는 부위는 손등이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가 되면 목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가볍게 기침과 콧물만 좀 나오고 며칠 쉬면 나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흘 가까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개인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절기 추위에 민감한 목을 보호하고 목감기를 예방하려면 머플러를 둘러 우선 목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적당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는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라 또는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지만, 보통 일 평균기온이 10°C 이하로 내려가면 따뜻한 불이 그리워지고, 사무실의 경우 8°C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은 보통 11월 상순경에, 남부지방은 11월 중순경, 제주는 12월 상순에 일 평균기온이 10°C 이하로 내려가지만, 기후는 늘 일정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난방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효율적인 난방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올레길폭설속에서(김중규)

감기가능지수

기상조건에 따른 감기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화

기상청에서는 기상조건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화한 ‘감기가능지수’를 제공 하고 있다. 감기 환자 수는 가을부터 증가해서 겨울에 가장 많고, 봄까지 지속함에 따라,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감기가능지수를 제공한다. 지수는 4단계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으로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감기가능지수’에 관심을 갖고 단계별 대응요령을 숙지한다면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를 잘 활용하여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2020년은 발생 당시 가장 최악을 경우 가정했던 코로나19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시시때때로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에 익숙해졌으며, 마스크와 손 씻기는 필수가 됐다. ‘언택트’라는 말이 새롭게 떠올랐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도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없었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2020년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실외활동이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야생동물이 시내로 나와 활보하였으며, 일 년 내내 뿌영던 아시아 대도시 중 하나인 서울은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보여줬었다. 실제로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NO.16)」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전년대비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7% 줄어들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08~0.23ppm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록 적은 감소이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대기 중 농도는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시 인간의 실외활동과 경제활동이 시작되고 계절이 바뀔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경제활동과 기후변화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부문에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활용 확대하며, 자금투자를 할 때 항공산업과 같은 고탄소 부문이 아닌 재생에너지 같은 저탄소 대체 부문에 하는 것도 대책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종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종식되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다양한 그린IT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흡수원을 늘리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대형 이산화탄소 발생 시설에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압축 또는 액화하여 토양 깊은 곳이나 해양 등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다.

개개인도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만큼 기후변화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달 음식을 이용할 때 1회용 용기 사용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그린카나 카셰어링,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저탄소를 위한 녹색 기술이나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또한, 대기 전력 차단기를 사용하거나 전기 사용을 자제하여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푸드 마일리지 낮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선언을 하였다. 이에 맞춰 기상청과 환경부는 공동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이후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를 발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온실가스 증가 감시, 배출원 추적, 기후변화 현상을 예측하며,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상청, 기후위기시대에 적극대응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점차 개인의 삶과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아니더라도 올겨울 유난히 잦았던 눈이나, 지난해 여름 역대 가장 긴 장마철만 떠올려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궤도로 흐르는 계절과 날씨의 흐름에 ‘위기’를 직감했을 것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기후위기시대에서 찾아지는 이상 기상·기후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상의 약 600여 곳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매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공간적으로 공백 없는 기상관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사회적인 상황으로 모든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촘촘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관측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이러한 관측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기상관측차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상관측차량은 기온, 강수량, 풍향·풍속, 기압 등을 현장에서 이동하여 관측할 수 있는 차량이다. 남부지방인 부산지방기상청과 광주지방기상청에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의 관측장비에 추가로 3차원 입체 관측이 가능한 기상관측차량을 수도권기상청과 대전지방기상청에 배치하여 중부지방의 관측 공백 지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관측공백 지역 해소 외에도 기상관측차량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

산불이나 화학사고와 같은 기상 상황이 중요한 재해·재난 현장에도 신속하게 출동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기상관측차량은 기온, 강수량, 상층의 기압, 바람 등에 대한 기상관측을 하여 차량 내에 탑재된 기상실황판으로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날씨 브리핑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상관측차량은 관측공백 지역에서의 기상관측뿐만 아니라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연구자료에도 이용할 예정이다. 대설이나 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출동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고,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나 여름철 도시 폭염, 고층건물 바람길 등 보다 정밀한 관측

자료가 필요한 현장에서 연구자료 수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지역 축제, 기상관측표준화 기술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상청의 2021년도 예산은 위험기상 예측역량강화, 기후변화 정책지원 강화 및 미래 기상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그중의 하나는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기상관측망 확충’이다.



기상관측차량이 특별한 이유

관측공백지역 해소 외에도
기상 상황이 중요한 재해·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14.6%가 증가된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기상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보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상관측망을 보강할 예정이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 위기시대에 집중호우, 폭염 등의 위험기상과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조밀한 지상기상관측망 구성을 위하여 올해는 기상 드론이 탑재된 기상관측차량을 추가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은 물론, 다양한 기상장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대전·세종·충남 겨울철 전망 및 기후분석 정보 제공
[2020. 12. 1.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 대전·세종·충남 겨울철 기상 현황

- 최근 10년 겨울철 기온 현황
 - 최근 10년(2010~2019년) 겨울철 평균기온은 -0.3℃로 평년(-0.8~0.0℃)과 비슷했음

대전·세종·충남 연도별 겨울철 평균기온(℃)

- 또한 최근 10년간 겨울철 최고기온은 5.0℃로 평년(5.2℃)과 비슷했으며 최저기온은 -5.3℃로 평년(-5.3℃)과 비슷했음

- 최근 10년 겨울철 강수량 현황
- 최근 10년(2010~2019년) 겨울철 강수량은 96.4mm로 평년(67.7~97.3mm)과 비슷했음

대전·세종·충남 연도별 겨울철 강수량(mm)

□ 대전·세종·충남 겨울철(20.12.~21.2.) 기상 전망

- [기 온]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 12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12~1월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12월			1월			2월		
대전	세종	충남	대전	세종	충남	대전	세종	충남
기온								
강수량								

월별 (a)평균기온 및 (b)강수량 확률 예보(20.12.~21.2.)

□ 겨울철 한파 현황 및 전망

- 한파 현황
 - 대전·세종·충남 한파일수는 최근 10년(2010~2019년) 628일로 나타났음.
- 한파 전망
 - 올 겨울철 동안 찬 공기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대전·세종·충남 주요 시·군별 겨울철 전망 및 기후분석 정보 제공(12.1.)

대전지방기상청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의 겨울철 한파대비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 주요 시·군별 겨울철 전망 및 기후분석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다. 정보에는 최근 10년(2010~2019년)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을 포함한 주요 17개 시·군의 눈현상일수 및 한파일수 통계 등 겨울철 기후분석 정보를 담았으며, 이번 겨울철 날씨전망에 대한 내용도 담아 지자체의 의사결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주요기능 | 지진 알림

**지진 발생 시 알림 → '수신알림줄' 클릭
→ 지진속보 메시지실시간 지진감시 보기' 클릭**

'지진알림' 테스트 화면입니다

실시간 지진감시 화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인 대상 기상강좌 개최(12.9.)

KBS대전과 대전교통방송 등 지역 방송국 기상캐스터를 대상으로 '제2차 지역 언론인 기상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주제는 대전지방기상청의 주요업무 및 한파 영향예보에 대한 소개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날씨알리미 앱 등 기상자료 활용법 강좌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언론인에게 기상정책과 기상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언론보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0년 보령댐 가뭄해소 인공증우 프로젝트 완료(12.9.)

상습 기상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뭄 대응 정책을 지원하고,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대전지방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협업으로 추진하였던 '2020년 보령댐 가뭄해소 인공증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충남도청, K-water 등 관련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실험이 수행 되었으며, 보령댐 인근에 실시한 인공증우 실험 3회 모두 강수 발생에 성공 하였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보령댐 유역의 관측망 조성 및 구축에 힘씀 으로서 인공강우량 검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 무인기상관측소 환경개선 공사(12.3.~4.)

대전지방기상청은 관리 중인 서산 무인기상관측소 내 컨테이너 바닥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관측장비 장애 예방을 위해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였다. 노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신규 랙과 트레이를 설치하여 관측 장비를 보고하고, 미사용 통신장치를 철거하여 전원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관측자료 수집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관측장소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관측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쪽집게 예보관 선정(12.10.)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 전문성 강화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매년 쪽집게 예보관(최우수, 우수예보팀)을 선정한다. 올해는 예보현업 4개팀을 대상으로 특보정확도 및 노력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 평가는 지역예보기술개발 및 소통협력도, 각종 대회 입상자 가점 등 적극성, 성실성, 협력도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 2020년 최우수 예보팀은 박종경, 허자윤 주무관, 우수예보팀은 서은진, 김기창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충남서해안 인공지능기반(AI) 대설예측기술개발 비대면 세미나 개최(12.16.~22.)

대전지방기상청은 인공지능(AI)을 기반한 충남지역 대설 예측기술개발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연구 기술공유 세미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AI 기상예측기술 선행연구 및 충남지역의 대설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대설 예측기술에 적합한 학습방법 및 적용기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겨울철 재해위험지구 현황도 제작(12.21.)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17개 시·군의 대설 재해 발생지역을 현장답사하여 겨울철 재해위험지구 현황도를 제작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업무포털에서 지정한 최근 10년 동안의 사유재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과거 피해금액, 상세지형 및 환경 특성 등을 반영한 재해위험지구 현황도를 제작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풍랑특보 검증 관측장비 현황



- ❖ 충남북부앞바다
 - 파고부이: 신진도, 장안퇴, 안면도, 천수만
 - 등표기상관측장비: 가대암
 - AWS: 안도, 옹도, 대산, 홍성죽도
- ❖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 파고부이: 장안퇴 / AWS: 대산
- ❖ 안면도 서쪽 평수구역
 - 파고부이: 안면도
- ❖ 천수만 평수구역
 - 파고부이: 안면도 / AWS: 홍성죽도

충남북부앞바다 평수구역 풍랑특보 운영 예보관 교육(12.16.~22.)

대전지방기상청은 예보관을 대상으로 충남북부앞바다 풍랑특보 운영에 대한 해양기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충남북부앞바다와 특정관리해역의 지리적 환경과 관측 장비별 관측값 변화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기상전문관이 해역별 특보 운영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예보관의 해역별 특성 이해와 풍랑특보 탄력운영으로 지역민의 해상활동 시간 확대 및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도로살얼음과 어는비 생성원인 및 사례분석 세미나 개최(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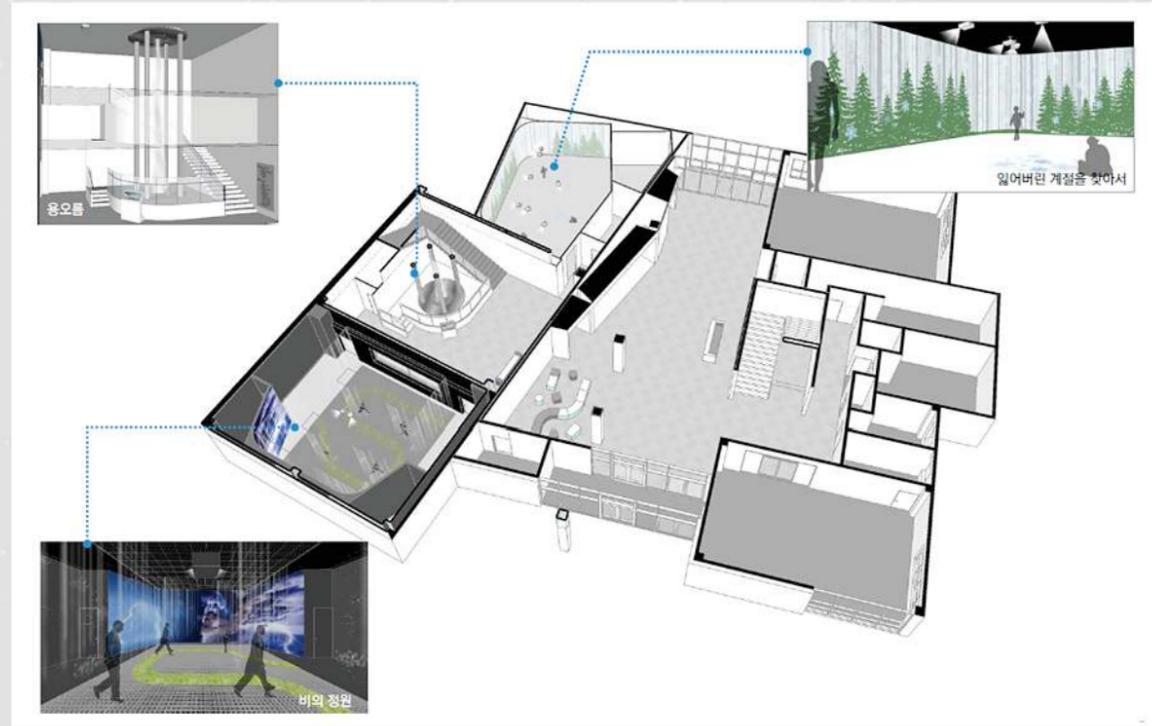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 예·특보 선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충남특화 위험기상 사전·사후 분석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충남지역 계절별 위험기상 분석의 첫 주제는 봄철과 겨울철 빙판길 사고의 주범인 도로살얼음과 어는비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도로살얼음과 어는비의 생성원인, 충남도 내 위험지역 분석이었고 세미나 발표 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최종보고회 개최(12.28.)

대전지방기상청은 2020년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회는 지난 1년간 실시한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주요내용은 e-러닝 학습환경 구축과 동영상 학습교재 지원으로 자기주도 학습환경 구현이다. 이로써 대전지방기상청은 그간 연구분석한 자료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지역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12.28.)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기상기후 오감체험을 위한 다양한 전시체험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비의 정원(강수체험), 용오름(작동모형) 등을 비롯한 약 12종의 전시체험물과 공간 배치 등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향후 충남권 전문 기상과학체험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전시체험물과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보·관측·기후특성 공유를 위한대전기상기술집발간(1.11.)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할지역의 기상특성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기상기술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하는 대전기상 기술집 제20권은 예보과 주관으로 관측과, 기후서비스과가 협력하여 지난 2년간 조사연구한 자료 중 기록으로 남길 자료를 선별하여 작성하였다. 예보과는 위험기상 사례, 예보기술발표 등 연구자료와 재해발생 지역 현장답사자료, 관측과는 관측환경 변화 및 관측장비 신설 교체 관련 자료, 기후서비스과에서는 계절별 기후특성 이상기후 분석 등을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2020년 기상기후사진전」 운영 결과(1.22.)

기상과학문화를 확산하고 기상업무 홍보를 위해 2020년 한해도 기상기후 사진전을 운영하였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온라인 전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였다. 한발도서관 홈페이지 및 밴드로 연계하여 비대면 관람객을 맞이하였으며 400명 이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상반기 전문가 초청 관측기술 세미나(1.12.)

대전지방기상청은 국지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기상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게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상관측 차량 관측장비 운영과 사용법을 숙지하였다.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저장, 전송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센서별 장애유무 체크를 확인하였다. 위험기상의 감시를 강화하고 재난현장 대응의 발빠른 지원을 기대해본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2020년도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보고서 발간(1.28.)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상의 위험기상 조기감시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북극령비도에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올해 보고서에는 서해기지 운영 주요사항을 요약, 관측장비 교체, 장애, 수집률 등 운영 주요 사항, 관측시설 개선, 보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지운영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공유하여 안정적으로 기지를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기상관측차량 고층 특별기상관측 지원(2.3.~4.)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해 인천 중구 운서동 항공기상청 상층풍 관측소에서 고층기상 관측을 수행했다. 서해북부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발달로 대설이 예상되어 3일 15시, 3일 21시, 4일 03시 총 3회 실시했다. 이번 특별기상관측을 통해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대기의 연직구조 파악에 기여하여 초단기예보에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백령도와 오산 사이 관측 공백지역을 해소하고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업무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중심 해양기상서비스를 위한 외연도 여객선 항로 현장의견 수렴(2.4.)

대전지방기상청은 여객선 운항(보령-외연도) 관련 해양기상서비스 협의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 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상관측선에서 관측(‘21.1.15.~19.)한 외연도 부근 해역특성을 공유하고 여객선 항로 해상 관측을 위한 파고부의 신규 설치 위치 협의, 여객선 운항 관련 자료 협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예보요소	평년(오늘)	어제(24일)	오늘(25일)	내일(26일)	모레(27일)
최저기온 (℃)	-5.9 ~ -2.7	-9.8 ~ -4.0	-6.2 ~ -6.5	-4 ~ -7	-2 ~ -7
최고기온 (℃)	5.9 ~ 11.3	5.4 ~ 13.1	7 ~ 12	8 ~ 15	6 ~ 15
파고(m)	서해 앞바다/연바다		0.5~3.0/0.5~4.0	0.5~3.5/0.5~5.0	0.5~3.5/0.5~5.0
	남해 앞바다/연바다		0.5~3.5/1.0~4.0	0.5~5.0/2.0~6.0	1.0~5.0/3.0~6.0
	동해 앞바다/연바다		0.5~1.5/1.0~2.0	0.5~5.0/1.0~5.0	1.0~5.0/1.5~5.0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특별교통 기상정보 지원 (2.9.~15.)

대전지방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맞춤형 특별기상정보를 제공하였다. 설 연휴 날씨전망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특별기상지원용 홈페이지 운영을 안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전국립현충원과 육상·해양 교통관계기관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하여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방역 및 교통대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구분	기상
대전,서해,남해,충청남도	☁(흐린) 가끔 구름, 가끔 흐림, 내일 아침까지 흐림, 내일 날씨가 맑음
충청북도	☁(흐린) 가끔 구름, 가끔 흐림
충청남도	☁(흐린) 가끔 구름, 가끔 흐림
충청북도	☁(흐린) 가끔 구름, 가끔 흐림

코로나19 충남권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제공(2.4.)

대전지방기상청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대한 실질적 기상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대응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관내 지자체 담당 부서와 보건소 등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서비스대상을 1소에서 5소로 확대하고, 각 지역의 기상실황과 예·특보, 기상지수 등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받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통보문을 자동으로 생성 및 발송하여 주말과 휴일에도 공백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2021년 설 명절 어려운 이웃 방문 봉사활동(2.9.)

대전지방기상청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화)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위문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봉사동호회 사랑나눔회를 통해 그룹홈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을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다. 이번 설을 맞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된 한부모가정에는 성금을, 그룹홈 아동복지시설에는 직접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01

2021
January

1. 08. 1월 월별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3위 - 17.5°C, 금산: 3위 - 21.1°C, 부여: 4위 - 20.7°C
1월 상순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2위 - 17.5°C, 금산: 2위 - 21.1°C, 보령: 2위 - 16.2°C, 부여: 2위 - 20.7°C
천안: 5위 - 19.3°C
1. 09. 1월 월별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서산: 1위 - 19.7°C, 홍성: 1위 - 21.1°C, 보령: 2위 - 17.2°C, 부여: 3위 - 21.2°C
1월 상순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홍성: 1위 - 21.1°C, 서산: 1위 - 19.7°C, 보령: 1위 - 17.2°C, 부여: 1위 - 21.2°C
천안: 2위 - 20.5°C, 금산: 4위 - 20.4°C, 대전: 4위 - 17.0°C
1. 10. 1월 월별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서산: 2위 - 18.7°C
1월 상순 일최저기온 극값(순위) 경신
서산: 2위 - 18.7°C, 보령: 4위 - 13.9°C
1. 24. 1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4위 14.5°C
1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1위 14.5°C, 보령: 2위 13.6°C, 서산: 3위 13.3°C, 부여: 3위 13.8°C
천안: 5위 12.5°C
1. 25. 1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부여: 2위 15.3°C, 서산: 5위 13.6°C, 대전: 5위 14.4°C
1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부여: 1위 15.3°C, 서산: 2위 13.6°C, 대전: 2위 14.4°C, 천안: 2위 13.0°C
금산: 3위 14.4°C

02

2021
February

2. 07. 매화 발아(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42일 빠름)
2. 13. 2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홍성: 3위 15.2°C, 대전: 5위 17.4°C, 부여: 5위 17.4°C
2. 20. 2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홍성: 1위 17.2°C
2. 21. 2월 월별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1위 22.6°C, 홍성: 1위 18.1°C, 천안: 1위 22.2°C, 부여: 1위 20.6°C
금산: 1위 22.1°C, 세종: 1위 22.0°C
2월 하순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대전: 1위 22.6°C, 홍성: 1위 18.1°C, 천안: 1위 22.2°C, 부여: 1위 20.6°C
금산: 1위 22.1°C, 세종: 1위 22.0°C, 서산: 5위 16.7°C
2. 23. 매화 개화(작년대비 8일 빠름, 평년대비 40일 빠름)

※ 홍성: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
(정규관측 개시일: 2017. 11. 01.)

※ 세종: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
(정규관측 개시일: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1. 2.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세천(643), 문화(642), 장동(648), 세종전의(629), 세종연서(611), 세종금남(496), 세종고운(494)
계룡산(659), 계룡(636), 논산(615), 연무(644), 양화(635), 서천(614), 춘장대(646)
홍성죽도(610), 대천항(657), 서부(645), 홍북(608), 원효봉(694), 태안(627), 외연도(669)
정산(691), 호도(578), 근흥(607), 만리포(658), 옹도(667), 신평(637), 안도(666), 삼시도(609)
대산(606), 당진(616), 청양(618), 송악(493), 아산(634), 예산(628), 성거(617),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북격렬비도(229)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